



제과의 종이 사용 현황

A paper use Marker of Confectionery

문순갑 / 롯데제과(주) 구매부 과장

종이는 식물성 섬유를 나무에서 분리시킨 다음, 이것을 물속에서 짓이겨 발이나 망으로 떠서 건조시킨 얇은 섬유조직으로 정의된다. 종이와 유사한 재료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에서 자라던 파피루스(Papyrus)였다. 주로 기록 재료를 위해 발전해 왔다.

제과와 같은 식품 포장으로는 종이 이전에는 짚이나 나뭇잎사귀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1차 개념으로 보관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차츰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광고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보다 양질의 재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의 종류는 산업이 복잡해 지면서 다양화되어 모두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과에서 포장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제과의 포장방법에는 크게 필름(Film)포장, 케이스(Case)포장, 용기포장, 지킵포장으로 분류된다.

필름포장은 일반적으로 봉포장 형식을 보이며,

케이스포장은 상자형식, 용기포장은 합성수지를 원료로한 병, 컵형식, 지킵포장은 종이로 컵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제과에서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케이스포장, 지킵포장이다.

이 업종에서 널리 사용되는 종이는 백판지(白板紙)라는 지종(紙種)이다.

백판지의 사전적 의미는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펄프를 사용하고, 그 중간층에는 고지(古紙)나 펄프(Pulp)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내절도와 인쇄적성이 좋아서 각종 지기의 제작에 사용되며, 인쇄적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표면에 고령토(Clay)를 피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정의하고 있다. 백판지는 마닐라(Manila)와 아이보리(Ivory)지(紙)로 구분되는데, 제과에서는 마닐라지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격과 인쇄, 작업적성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리가 없는 종이재료이기 때문이다.

두 종류 중에 마닐라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과 케이스 포장의 약 95%이상이며, 나머지



▲ 종이포장재를 이용한 제과 포장제품들

는 기타 지종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CCP라는 고급 지종을 사용하는 포장도 등장하였다.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케이스포장에 사용되고 있는데, 가격이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특정포장에 사용하고 있다. 평활도, 광택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최고급 포장에 사용되는 지종이다. 인쇄방법으로는 오프셋(Off-Set)인쇄방법이 사용된다. 오프셋인쇄는 간접인쇄 방법의 하나로 판에 묻힌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인쇄되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리고 표면에 효과를 내기 위하여 엠보싱(Embossing), 금박등을 입히는 처리를 하여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롯데제과의 초콜릿 제품 빈츠초콜릿포장을 보면 제품 내용물의 형태를 볼록효과를 내기 위해 엠보싱처리를 하였으며, 제품의 로고(LOGO)를 금박처리하였다. 지킵포장에는 주로 로열아이보리(Royal Ivory)와 킵지(紙)를 사용하고 있다. 제과

내용물과 직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내면에 피이(PE) 코팅처리를 하여 사용하며, 인쇄방법에는 오프셋인쇄와 그라비아인쇄가 사용된다.

그라비아인쇄는 주로 필름류 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인쇄방법이다. 지킵포장형태는 제과에서 빙과류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일회용 지킵(자판기용 지킵)이 보편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제과에서 박스(BOX)에 사용되고 있는 종이로 라이너지가 있다. 주로 고지(古紙)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제과용 박스의 대부분이다. 인쇄방법으로는 플렉소(Flexo)인쇄를 사용한다.

수지 또는 고무 볼록판을 사용하여 액체 잉크로 인쇄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종이 외에도 모조지, 박엽지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종이들은 주로 껌 내포지(內包紙), 외포지(外包紙)에 이용되고 있다. 일부 캔디류 싸개지등에도 사용된다. 카라멜종류의 내용물을 싸고 있는 포장재를 보면 알 수 있다. 100